

# 盧 분향소 앞 5월단체 추태

‘5·18 부활제’ 무대 설치 싸고 폭력사태 … 3명 부상

시민들 “추모공간서 몸싸움…부끄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된 옛 전남도청에서 (사)5·18 민주유공자유총회 및 5·18 부상자회와 5·18 구속부상자회가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 준비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빚어져 3명이 다쳤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가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법·국민적 추모와 자기 성찰 분위기 속에 이같은 추태를 보여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투했다.

27일 5월 관련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별관 앞 광장에서 유족회원 및 부상자회원 20명과 구속부상자회원 20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의 발단은 구속부상자회원 20명이 유족회 등이 옛 도청 별관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 주변에 5·18 29주년 마지막 행사인 ‘부활제’ 무대를 설치하려 하자 유족회 등이 강력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몸싸움을 벌인 장소는 노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이다. 유족회원들은 “농성장을 가로막지 마라. 무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구속부상자회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오갔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정수만 유족회장 등 유족회원 2명과 구속부상자회원 1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회원들간 언쟁과 몸싸움은 20여 분간 지속됐다.

이에 앞서 옛 도청 별관 철거를 지지하는 구속부상자회원 20명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옛 도청 별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유족회와 부상자회의 농성장에 들어가 강제로 이들을 해산하려다 서로 물리적 충돌을 빚었었다.

5월 관련단체의 이 같은 행태에 대

해 시민들은 “고인의 넉을 가리는 추모공간에서 왜 싸우느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조문객 정모(32·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정말 광주가 부끄럽다. 화해와 통합을 해도 부족한 관에 서로 싸우고 혐오를 허야 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조문객 김모(46·남구 주월동)씨는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분향소 주변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들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5월 영령들에게 부끄럼 지도 않느냐. 민주화를 위해 온 몸을

희생한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족회 강구영 대변인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판이 두렵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옛 도청 별관 보존을 위해 농성에 참여했던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3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과 별관 철거에 합의한 뒤 농성을 풀었으며,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이날까지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盧 추모 속 ‘5·18 부활제’

27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별관 앞 광장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부활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추모사를 듣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판소리 공연 등 일부 행사는 취소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산강 주변 경작지 70% 이상 ‘불법’

## 농약·제초제 사용 수질 오염

영산강 주변의 경작지 중 70% 이상이 불법 경작지이며 이 곳에서 사용되는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 등이 영산강 수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도는 낮았으나 합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정화를 하더라도 물에

남는 노닐페놀이 영산강 조사지점 대부분에서 검출되고, 지천인 고막원천과 영암천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는 27일 발표한 ‘영산강·섬진강

수계 잔류농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수계 31개 지점에 대한 70개 종류의 유해물질 조사에서 영산강은 32개 종류, 섬진강은 28개 종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hk@kwangju.co.kr

또 환경 유해물질인 디에틸 프탈레이트와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40% 이상, 카바미이트계 농약인 메토밀이 각각 29.2%(영산강)와 31.5%(섬진강)로 높게 검출돼, 유기염소계계 농약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hk@kwangju.co.kr

영산강·섬진강 중권역 대표지점(31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6회에 걸쳐 환경 유해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영향물질을 분석한 결과 영산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 모두 노닐페놀이 95.8%의 검출빈도를 보였다.

위치추적에 나선 광산소방서는 이날 백우산 아래에 있는 고씨의 차량

도발견했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주식투자에 실패해 2차례에 걸쳐 4천

500만원을 대출받아 준 적이 있다”고

## 목포 내화촌 방조제 공사비

### 10억 빼돌린 공무원 등 구속

목포지역 방조제 개보수공사 과정에서 10억대의 공사비를 빼돌린 시공업체 대표와 허위 준공서류를 발급한 공무원 2명 등 13명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7일 목포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거액의 공사비를 가로챈 S건설 대표 A(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목포시청 B(47·씨) 등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건설의 협력업체인 Y건설 대표 C(45·씨) 등 1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S건설 대표 A씨는 원도급사로 선정된 P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입하고 불법 자재를 사용

하는 등 하청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비 11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공무원 2명은 공사가 당초 설계 서대로 완공된 것처럼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

서해청에 따르면 S건설은 업체 두 속으로부터 종합면허를 빌려 내화촌 개보수공사를 따냈으며, 토목자격증을 소유한 D씨는 현재 병원에서 요양 사로 재직 중인데도 S건설 직원으로 일해온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해청은 무안 사장지구 밭기반 공사와 관련, S건설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청 공무원 D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차·오토바이 충돌 형제 사망

26일 오후 4시30분께 함평군 고마리 도로에서 노모(40·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김모(49·씨) 형제가 탄 오토바이가 충돌해 김씨와 동생(40·이) 숨졌다.

김씨 형제가 탄 오토바이는 승용차의 왼쪽 후부사고로 충돌한 충격으로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황운숙기자 hwang@

‘盧 전 대통령과 인연’ 60대 여 실신

○…여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년 전 인연을 잊지 못한 60대 여성이 분향소에서 실신.

○…27일 오전 11시40분께 함경북도(63·씨)는 여수시 여서동에 차려진 노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팔(36)과 함께 조문하다 실신했으나 곧바로 의식을 되찾아 안도의 한숨.

○…한씨는 1990년 경남 진주시의 한 길가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나 5분간 대화했으며, 당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자신을 노 전 대통령이 말려 지금까지 살게 됐다고 회고.

○…한씨는 “목매달이 죽으려던 날 살린 당신이 돌아가시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약속은 생명이다, 옥심 부리지 마라’란 글이 새겨진 액자와 두 사람이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 50명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회생 워크숍’을 열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회생비를 개선과 회생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독려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7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회생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남성 헤어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50% ~ 100% '사랑세상' 행운

**초슬립!!**

**최50 6월 15일까지 만원~**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한류한류판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10-423-2902, 010-423-2903  
문자 010-600-9955

**대호온돌침대/까사갤러리**

**광주신세계백화점 특가판매**

광주신세계 지하1층에서 만나십시오!

대호온돌침대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온돌마-대호온돌나라!!

부모님 효도선물로 최고입니다.

Ondolnow

전화번호: 062-360-19003  
세 번째 번호: 361-3259